

한일기층문화의 상관성 분석을 위한 일본 가신신앙의 연구사적 검토*

박 동 석**

차 례

| | |
|------------------|---------------------|
| I. 머리말 | IV. 家神과 宅地神에 관한 研究史 |
| II. 家神의 종류와 특징 | V. 山神·農神·水神에 관한 研究史 |
| III. 宅地神의 종류와 특징 | VI. 맺음말 |

I. 머리말

일본의 전통적인 住居로서의 이에(家)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을 지켜주고 보살펴 주는 神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조상을 모시는 부스단(佛壇)¹⁾을 두고 있음과 동시에 자시키(座敷)라는 다다미방의 천장

* 이 논문은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실중점연구소 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2차년도 중간보고)

** 성심외국어대학 외국어통상학부 일어전공

1) 佛壇 : 家庭祭祀의 祭壇으로 神棚과 함께 家内の 聖所에 위치한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장실과 같은 형태의 것으로서 家에 따라 규모의 크고작음은 물론 구조의 차이가 있다. 內部에 龕을 설치하여 本尊持佛 혹은 祖師의 彫刻像을 安置한다. 畫像·名號 등을 걸어놓는 경우도 있다. 香花·燈明·茶飯을 바치며 現世來世의 利益安穩을 바라는점에 있어서는 寺院참배와 마찬가지로 이지만, 일찍부터 조상의

바로 아래에는 가미다나(神棚)라는 神을 모셔놓은 감실(龕室)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언뜻 보기에 불교와 신도(神道)와는 동일한 공간에서 교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부엌에는 우리의 조왕신에 해당하는 가마도가미(カマド神)와 물의 神인 수이진(水神)이 함께 모셔져 있다.

이밖에도 부엌에는 福神인 에비스(エビス)와 다이고쿠(大黒)가 사이 좋게 동시에 모셔져 있는 경우가 많다. 가옥의 중심을 이루는 기둥인 다이고쿠바시라(大黒柱)에는 이에를 지켜주는 守護靈이 깃들여 있다는 俗信은 이미 보편화 되어 있다. 또한 침실에 해당하는 난도(納戸)에는 난도가미(納戸神)가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화장실에도 축신(厠神)이 존재 한다는 事例도 여러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家內에 居住하는 이와 같은 神들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에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끊임없이 交信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家內에 거주하는 神들과 家族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서로 교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에게 있어서 이에라고 하는 것은 명실상부한 人間과 神이 서로 共生하는 住居이며 거기에서 전개되는 民俗은 神과 人間과의 交流關係를 나타내는 것임에 틀림없다.

본고에서는 家神 및 宅地神(屋敷神) 그리고 山神·農神·水神에 대한 研究史의 검토에 목적이 있다. 이들의 現狀과 問題點들에 대해 여기서 한꺼번에

위패를 세워놓고 명복을 빌고 있었다. 常設의 神棚이나 佛壇도 中世의인 信仰樣式이라 할 수 있으며 조상제사의 祭壇이었던 神棚이 이후에는 神社의 神札의 奉安所가 되고 그대신 佛壇이 조상의 제단으로 바뀌게 되었다. 원초적인 일본인의 민족신앙으로 뿌리내린 神棚이 神社神道の 양향아래 변질됨에 따라서 佛敎의 敎義와 儀禮에 기반을 둔 佛壇이 齋舍信仰에 의해 屋內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 2) 神道 : 日本民族固有의 傳統的인 宗教的實踐과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生活態度 및 理念을 뜻하며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 등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로 祖上神·지역神(氏神)·國祖神崇拜를 중심으로 하게 되었으며 야마토(大和)조정에 의해 國家的祭祀로 制度化하기에 이르렀다. 외래신앙인 불교에 대항하여 형성된 개념으로 그 후 불교는 물론 유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兩部神道·伊勢神道·吉田神道·垂加神道·復古神道등 많은 神道理念이 생겨나게 되었다. 明治이후에 접어들면서 神社는 國家의 관리아래 놓여지게 되어 伊勢神宮을 頂點으로하는 國家神道가 형성되었지만 제2차세계대전후 神道指令에 의해 해체 되었다.

論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벅찬 일이므로 우선 연구사를 정리한 후에 다음 단계에 가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연구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에 보완해서 언급할 것임도 아울러 밝혀두고자 한다.

II. 家神의 종류와 특징

이에에 모셔지는 家神의 명칭은 매우 복잡하여 그 체계를 세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들 중 특히, 부쓰단과 가미다나에 관해서는 야나기다(柳田國男)와 히라야마(平山敏治郎)(柳田「祖先の話」, 『定本柳田國男集』第一〇卷, 平山「神棚と佛壇」, 『史林』三二卷四号)의 연구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는데, 부쓰단은 祖靈을 모시는 장소로서 예전에는 임시로 시령을 설치하여 모시던 것이 점차 위패 안치의 장소로 바뀌어 祖靈이 常存하는 곳으로 관념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祖靈을 모시는 부쓰단은 同族祭祀에 의한 祖上祭禮時에 크게 기능하고 있다. 分家한 사람이 本家に 인사를 하러 가게 될 경우 그때 맨 먼저 本家の 부쓰단에 절을 하는 事例가 있기 때문이다. 家内に 모셔지게 되는 神들 중에서 神格이 가장 높은 神이 모셔지는 장소가 가미다나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祭神體系가 神道家에 고정화된 단계 이후의 소산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家神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아궁이신(火所の神)이다. 화로신(爐の神), 부뚜막신(カマド神)에 관한 자료는 매우 많은 편인데, 이것은 집이 부뚜막을 중심으로 발전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부뚜막신의 명칭은 지방마다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가마사마(お釜様)·고우진(荒神)이 가장 많다.

일반적으로 고우진은 우리의 조왕신에 해당하는데, 祭儀를 부엌에서 행하는 것으로 미루어 부엌에 모셔지는 神이며, 인간의 일상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神格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가리켜 긴키(近畿) 서부지방에서는 널리 삼보 고우진(三宝荒神)이라 불린다. 이와 같은 명칭이 민간에 널리 알려지게 된

배경에는 비파(琵琶)를 연주하면서 지신경(地神經)을 외우며 아궁이의 부정을 없애려 다니던 지신맹승(地神盲僧)의 판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호쿠(東北) 지방에서는 조왕신을 가리켜 가마진(カマジン)이라 부르는데 그것이 와전되어 고우진이 된 것이라고 한다. 일부지역에서는 오가마사마(お釜様)는 아궁이 神이고 고우진은 화재를 막아주는 神으로 양자를 구별하는 경우도 있다. 본래 아궁이 神은 農事를 도와주는 神이라고 하는데 그 성격의 일부는 고우진의 信仰에도 계승되고 있다. 류고쿠(中國)지방의 서부지역에서는 우리의 성주신(城主)에 해당하는 야시키가미(屋敷神)나 同族神, 部落神으로서 宅地나 집 뒷뜰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중심으로 고우진을 모시는 예가 널리 알려져 있다. 이것은 흔히 지고우진(地荒神)이라 불리는 神으로 宅地神의 性格을 띠고 있다. 가부(株)라고 하는 同族이 祭祀를 지내는 神은 가부고우진(主荒神)이라 하며, 또한 가부라는 이름을 붙여 ○○荒神 이라 부른다. 화신(火の神)으로서의 고우진과 지고우진(地荒神)은 본래 전혀 다른 계통의 信仰이라 보기 어렵다. 시마네현(島根縣)의 일부지역에서는 고우진 고모리(荒神籠り)라 칭하여 모내기 후나 추수 후에 산기슭이나 숲에서 불을 지피고 밤새도록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두 종류의 고우진의 접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고우진은 문자 그대로 매우 난폭하고 탈이 나기 쉽긴 하지만 그런 만큼 영험력(靈驗力) 또한 탁월하다고 여기고 있다. 아궁이에 낀 그을음은 고우진스미(荒神墨)라 하는데 이것을 몸에 바르면 악마나 재앙을 쫓아 낼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부임신인 에비스·다이코쿠인데, 둘다 대표적인 福神이다. 이들은 家門의 재산을 수호하는 神으로 관념되고 있다. 이들 중 에비스는 먼 곳에서 온 신(遠來神)으로 신봉되며 외부로부터 많은 福를 초래하게 하는 존재이다.

다이코쿠는 불교의 天部の 神이지만, 천태종에서는 주방의 神이 되어 사찰의 부엌을 수호한다고 믿어 졌다. 다이코쿠는 이즈모(出雲)의 오오구니누시노가미(大甕主神 : 古事記에 기록된 이즈모신화의 主神)와 관련되어 민간에 전해지게 되었는데, 에비스·다이코쿠가 특히 家神化한 단계에서는 農村지역의 農神(田の神)과 습합한 결과라 추정되고 있다. 農神에 대한 제사는 농경의례

의 중추를 이루는 것으로서 모내기 전후가 중심이 된다. 그때 벗모 세 묶음을 에비스·다이코쿠 그리고 가마도가미에게 바치는 풍습은 전국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를 통해 家神祭가 農神에 대한 제사와 동시적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음력 10월 이즈모로 모든 神이 외출할 때 집을 지키는 신으로서도 에비스·다이코쿠를 들 수 있으며 아울러 가마도가미도 이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집을 지키는 神 = 家神에 대한 제사가 대부분 주부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점도 매우 특징적이다. 집을 지키는 神으로서의 존재의미는 이 사이에 家神祭가 행해진다는 뜻이며 그 대상이 앞에서 열거한 아궁이神과 부엌神이라는 점은 중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난도가미(納戶神)에 관해서는 부부가 사용하는 침실로 제사장소가 이동한 점이나 음식물의 신(飲食의神)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家内に 있어서 제사 장소의 이동의 하나로서 침실인 난도(納戶)가 선택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난도가미의 본포가 서일본 지역에 많은 것은 하나의 문제이지만 역시 특징적인 것은 난도가미를 農神이라든가 여신(女の神)이라 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시즈카(石塚尊俊)의 보고(「納戶神をめぐる問題」『日本民俗學』二卷二号)에서는 돗토리현(鳥取縣) 중부지방에서 난도가미라고 하는 것은 문을 열어놓은 벽장 속에서 평소에는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새해가 되면 이 앞에 가마니를 두장 깔고 그 위에다 일종의 장식을 위한 상자(물통)인 도시오케(歳桶)를 놓고 여러 가지 장식을 한다. 가마니는 본래 벼짚으로 만든 것이며, 도시나시고메(トシナシ米)라 하여 벼모종으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食用으로 했다고 한다. 난도가 정월신(年神) = 農神(田の神)에 대한 제사 장소였다고 하는 점은 분명 사실일 것이다. 이 의례가 의미하는 점에 대한 이시즈카의 지적에 따르면 노토(能登)지방의 아에노고토(アエノコト)³⁾와 마찬가지로 벼 그 자체를 모시는 점이라고 한다. 즉,

3) 아에노고토 : 北陸지방의 能登半島一帶에 남아있는 행사로서 본래는 11월 5일에 행해졌으나 현재는 12월 5일에 행한다. 一家의 主人이 정장차림으로 논에서 農神을 불러내어 1년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목욕탕에 넣거나 도쿄노마(床の間)로 안내하여 쌀밥을 들게하며 충분히 대접을 한후 돌려보내는 행사로서 正月에는 반대로 農神을 맞아드리는 마찬가지로 행사가 있었다. 이와 같이 확실하게 農神을 맞아드리고 보내는 행사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경우 農神이 穀靈으로 의식되어 있으며 이 穀靈이 난도에 모셔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 왜 이 穀靈을 난도에 모시고 있는가 하면 인간이 수면을 취하는 방을 제사 장소로 삼아 穀靈의 탄생을 기원하였던 것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와 같은 이시즈카의 착상은 매우 흥미 있는 것이긴 하지만 좀더 분명한 사실확인이 요망된다 하겠다.

Ⅲ. 宅地神의 종류와 특징

일본의 宅地神(屋敷神)은 집터에 모시는 土地神의 성격이 전제가 되며,택지의 어느 한 곳에 마련한 작은 祠堂에 모시게 되는데 봄, 가을에 걸쳐 제사를 올린다. 그런데 그 명칭은 우지가미(氏神), 우치가미(內神), 지가미(地神), 지누시가미(地主神), 와카미야(若宮)⁴⁾등 실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宅地神에 대한 연구를 집대성한 나오에(直江廣治)의 연구(『屋敷神の研究』)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宅地神은 各戶宅地神, 本家宅地神, 一門宅地神의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 역사적 변천을 살펴볼 것 같으면 本家를 중심으로 하는 一門宅地神이 가장 오래 되었는데, 그것이 同族결합의 붕괴와 分家들의 탈락에 의해 本家宅地神으로 移行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分家の 실력이 대두되면서 同族결합의 틀이 붕괴됨에 따라 各戶宅地神으로 分化하게 되었다고 하는 식이다. 民俗

4) 若宮 :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앙(탈)을 막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神格의 지배아래 미코가미(御子神)로서 죽은者의 영혼을 모시는 것을 가리켜 와카미야라고 한다. 와카미야 思想의 성립배경에는 영혼신앙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바로 미코가미 신앙이 그 근간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옛날에는 神社에 소속되어 神託을 전한 와카미야베(若宮部) 그리고 무당등의 활약에 의해서 와카미야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후쿠오카현(福岡縣)·이바라기현(茨城縣)·니이가타현(新潟縣)등에서 공수무당을 가리켜 와카(ワカ)혹은 와카사마(ワカサマ)라고 부르는 것은 그와 같은 연유에서 일 것이다. 여러 와카미야 중에서도 야하타(八幡)의 와카미야가 가장널리 信仰되고 있는데 야하타가미(八幡神)는 본래 神託이 뛰어나며 무당들에 의해 가장 잘 받아들여 모셔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事例로서 많이 등장하는 各戶宅地神의 성립에는 各戶宅地神을 宅地の 수호신으로 간주하는 思考와 아울러 산속에 은둔하며 修行하던 修道者등의 민간 종교인들의 관여가 크게 작용한데 기인한다. 한편 宅地神의 分化의 방향과는 별도로 확대로의 방향도 있다. 즉 一門宅地神이나 本家宅地神이 信仰圈을 확대시켜 地域神이 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宅地神의 성격에 관한 키포인트는 나오에의 세밀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祖靈과의 관련에 있다. 宅地神이 開發祖上(始祖)의 묘지와 연관되거나 家門代代의 死者가 주기를 마치면 宅地神으로 바뀌게 된다는 傳承이 주목된다. 또한, 宅地神의 제사가 農神王래의 시기와 연관되는 점도 祖靈적 성격의 설명자료가 된다. 宅地神이 심한 재앙을 초래하게 한다는 점도 특징의 하나인데, 예를 들어 소홀하게 대하거나 제사의 성의가 부족하게 되면 벌을 내린다. 이처럼 벌(재앙)을 내린다는 발상에 관해서는 앞서서도 지적한 민간 종교인의 관여에 의한 것이 크다 하겠다. 하지만 祖靈이 본래 그렇게 심한 벌을 자손들에게 내렸는가 하는 점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나오에가 宅地神에 대한 제사장소의 이동을 祖靈의 제사장소 그 자체로 파악한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宅地神이 家内の 한쪽구석에서 집 뒤쪽에 있는 산, 더 나아가 다소 동떨어진 土地, 田畠의 근처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예전에는 農神의 제사장소였던 것이 점차로 가옥 근방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은 가옥 내부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 동기는 첫째로 宅地神을 宅地(家屋)의 수호신으로 여기는 思考方式이 강조되어 왔다는 점, 둘째로 祭祀후의 祝宴을 즐기고 싶다는 기분이 작용했다는 점, 셋째로 田畠의 변화와 森林의 개간 등의 사정에 기인한다고 한다.

IV. 家神과 宅地神에 관한 研究史

호리(屈一郎)에 의한 民間信仰의 분류방법에 氏神型과 人神型의 두가지가 있는데, 그는 민간신앙의 基底에 遊行思想을 둔 大著『我が國民間信仰史の研究』를 저술함과 동시에 애니미즘적 신앙을 기본으로 氏神型과 人神型의 두

가지 신앙의 조화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兩者에 보이는 神의 성격이나 기능·祭祀集團의 특질·宗教人の 관여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찰 하고자 하는 家神·宅地神은 바로 氏神型에 속하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氏神信仰에 관해서는 야나기다(柳田國男)의 일련의 저서 『日本の祭』(『定本柳田國男集』10 筑摩書房, 1962), 『先祖の話』(『定本柳田國男集』10 筑摩書房, 1962), 『氏神と氏子』(『定本柳田國男集』11 筑摩書房, 1963) 『山宮考』(『定本柳田國男集』11 筑摩書房, 1963) 속에서 祖靈信仰을 그 중심에 두고 古代의 氏族 구성원이 제사를 지내는 氏神이 지역적인 마을의 氏神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宅地神·家神으로 변천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 論하고 있으며, 그 후의 연구를 포괄하여 히라야마(平山敏治浪)(『家の神と村の神』 『日本民俗學大系』8 平凡社, 1959)가 氏族 구성원의 氏神을 원점으로 하여 무라우지가미(村氏神)·마키우지가미(マキ氏神)·야시키우지가미(屋敷氏神)라고 하는 세 종류의 氏神을 설정함과 동시에 그 역사적 변천에 대하여 論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氏神信仰을 요령있게 잘 정리하고 있다. 이 밖에도 家神·宅地神·마을의 氏神을 총괄적으로 論한 하기와라(萩原龍夫)(『家の祭と村の祭』 『民俗學研究』2, 1951)의 주장도 참고할 만 하다.

소위 앞의 宅地神의 종류와 특징에서 언급한 바 있는 氏神系信仰 중에서 특히 宅地神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을 체계적으로 論한 사람은 나오에(直江廣治)(『屋敷神の研究—日本信仰傳承論—』 吉川弘文館, 1966)이다. 그는 宅地(屋敷)에 대해 狹義·廣義의 두 가지 개념을 설정하여 전국각지의 宅地神信仰 자료를 폭 넓게 수집하여 그 분포와 역사적 변천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宅地神의 성격을 검토하는 내용 속에서 그 핵심으로서의 祖靈信仰을 지적함과 동시에 宅地神의 祭祀 장소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 가고시마(鹿兒島縣)내에 분포하는 모이돈(モイドン)·우치가미(内神)의 兩信仰을 그 例證으로 삼아 宅地神에 대한 제사 장소가 집 밖으로부터 집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宅地神의 제사장소의 이동이나 일반 종교인의 택지신에 대한 관여 등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이는 각 지역마다의 세밀한 조사연구를 통해 그 논리적 타당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각 지역에서 조사된 宅地神에 관한 연구나 보고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나오에(「屋內神」和歌森太郎編『美作の民俗』吉川弘文館, 1963, 「荒神信仰」以下上同, 「イトウと家の神信仰」和歌森太郎編『志摩の民俗』吉川弘文館, 1965 「『ニソの杜』信仰とその基盤」和歌森太郎編『若狹の民俗』吉川弘文館, 1966 『屋敷神の研究 -日本信仰傳承論-』吉川弘文館, 1966)에 의한 일련의 宅地神에 관한 研究 이외에도, 예를 들자면 宅地神의 祭祀 장소, 이것은 聖地信仰研究와도 관련되는 문제인데 니소노모리(ニソの杜)·고우진모리(荒神森)·모이돈(モイドン)에 관해서는 야스마(安間清)(「福井縣大飯郡大島村ニソの杜調査報告」『民俗學研究』3, 1952) 오노(小野重郎)(「モイドン概説」『薩南民俗』10, 1958) 미우라(三浦秀彦)(「岡山縣の荒神籠りと荒神講」『日本民俗學』3의2, 1955)등의 논문을 비롯하여 몇 편인가의 중요한 연구들이 있다. 또한 宅地神에 대한 司祭者에 주목하자면 그것은 당연히 家族·同族·親族등 社會構造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케다(竹田旦)(「株講と株内」『家をめぐる民俗學研究』弘文堂, 1970) 그리고 후쿠다(福田アジオ「若狹大島の村構成と親方子方制度」和歌森太郎編『若狹の民俗』吉川弘文館, 1966)의 연구가 주목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 지역마다의 면밀한 宅地神研究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社會構造는 물론 地域性과의 관련에 대한 분석도 아울러 진행해야할 중요한 문제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家神信仰에 관해서도 그 중심에 祖靈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야나기다가 주장하는 祖靈信仰이 家の 祖上으로서의 祖靈이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先學들이 지적하는 바이다. 예를 들면, 다케다(竹田聰洲)(「日本の『家』とその信仰 -第9回國際人類學民族學會議報告-」『社會科學』1-1, 1974)는 家에 있어서 神聖하게 여겨지는 곳으로서 竈·가미다나·부쓰단·이로리(イロリ또는カマド)의 4군대를 들며, 각각의 성립배경과 이와 같은 것들에 인식되어 있는 祖靈信仰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미다나나 부쓰단에 관해서는 히라야마(家神의 종류와 특징참조) 그리고 하기와라등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도시다나(年棚)나 봉다나(盆棚)

와 마찬가지로 계절마다 찾아오는 祖上을 모시던 祭壇이 恒久化한 것으로서 부쓰단은 에도막부(江戶幕府)의 宗教政策의 일환으로, 가미다나는 이세신궁(伊勢神宮)의 다이마(大廡:伊勢神宮등에서 수여하는 부적)를 받는 관습에서 비롯돼 성립된 것이다. 또한 宅地神의 유형 중에서 각 집마다 모시는 宅地神이 가장 새롭다고 논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同族結合의 弛緩과 各家의 독립등에 의해 家에서의 祭祀가 행해지게 되었다는 점, 주거 내에서의 祭祀는 屋外에서 지내고 있던 제사가 변화한 것이라는 점 등이 주장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家神이라 할 경우 家族의 生活의 場으로서의 住居內에 모셔지는 神들을 총칭하여 하는 말인데, 이런 경우 住居內의 여러 곳에 모셔지는 神의 個個의 性格이나 成立, 相互關連 등이 중요한 연구과제가 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쓰보이(平井洋文)의 家神에 관한 일련의 연구 논문들이 주목된다.

쓰보이(「家の祭祀的構造」上『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紀要』37, 1976)의 家神에 관한 이해는, 야나기다가 말하는 조령(祖靈) = 산신(山の神) = 農神(田の神) = 家神(家の神)이라는 理論의 영향을 비교적 강하게 받은 나머지 稻作·通過儀禮나 年中行事를 통해 앞에서 언급한 명칭의 어느 神인가가 종종 나타나곤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상징적 통합명칭이 祖上神이라고 하는 前提에 입각한다. 더욱이 住居內에 모셔지는 神을 더욱 세분화하여 잘 보이는 곳에 모셔지는 神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모셔지는 神의 두 가지로 분류한다. 그 중 前者에 해당하는 신, 즉 가미다나나 부쓰단에 모셔지는 神은 祖上信仰을 배경으로 한 포괄적신으로서 논(峯)과의 왕래신앙을 결여시키고 있는데 반하여, 後者를 다이고쿠(大黒)·가마도(竈)·난도(納戸)·구라(倉)등에 모셔지는 신들은 農神信仰을 배경으로 한 기능적 神으로서 논과 집사이의 왕래신앙을 따른다고 하며, 잘 보이는 곳에 모셔지는 신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모셔지는 신의 성격차이를 지적하고 家神信仰研究에서 後者를 즉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모셔져 있는 神들에 대한 信仰을 보다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쓰보이의 입장은 지금까지 발표된 家神信仰관계의 여러 논문들에서도 일관되고 있으며, 주로 稻作·通過儀禮·年中行事 등의 의례분석을 통해 각각의 神의 性格을 분명히 해오고 있다.

家神信仰研究에서는 쓰보이 이외에도 부뚜막신(カマド神)에 관해서는 오후지(大藤時彦)(「家の神としての火の神」 『民間傳承』 10-6, 1944) 그리고 와카모리(和歌森太郎)(カマド神) 『日本歴史』 3-5(「神ごとのなかの日本人」 弘文堂, 1950)의 논문이 있으며, 난도가미(納戸神)에 관해서는 그것이 穀靈이며, 司祭者인 여성의 방인 난도에 모셔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시즈카(石塚尊俊)(『日本の憑きもの』 未來社, 1959)의 논문 같은 것들이 주목된다 하겠다.

家神에 대한 信仰 중에서 住居内に 모셔지고 있는 神들의 性格이나 相互關連과 동시에 그것이 家の 成衰傳承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점에 대해서는 모가미(最上孝敬)(「家の成衰と傳説」 『日本民俗學』 1-4, 1953)가 신비적인 家の 成衰傳承과 現實的인 掠奪·橫領에 의한 成衰傳承으로 나누어 論하고 있으며, 遊行者의 殺害와 家の 成衰와의 關係를 論한 쓰보이(「家の成衰と傳説」 『日本民俗學』 1-4, 1953)의 論文이 있다. 이와 같은 家の 成衰傳承과 家神이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信仰中 대표적인 것으로서 도호쿠(東北) 지방에 분포하는 자시키도우지(座敷童子)·오시라사마(オシラサマ: 關東지방에서 東北지방에 걸쳐 民間에서 신봉하는 양잠의 神)·쥬고쿠(中國)지방의 미코가미사마(ミコガミサマ)를 들 수가 있다.

V. 山神·農神·水神에 관한 研究史

山神·農神·水神 등의 信仰은 사쿠라이(櫻井德太郎)(『民間信仰』 塙書房, 1966)가 山神·農神을 가리켜 産靈信仰(穀靈 등 生産을 관장한다고 믿는 信仰)에 기인한 것으로서 民族信仰의 基底에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民間 신앙의 基層에 위치함과 동시에 이 三神은 각자가 완전히 독립된 信仰體系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호관련을 바탕으로 논의 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祖靈信仰, 家神을 비롯한 往來信仰·山岳信仰·이나리(稻荷)信仰,⁵⁾ 더 나아가 民俗學의 다른 분야 - 그 중에서도 年中行

5) 이나리信仰: 京都의 伏見稻荷神社를 中心으로 하는 信仰으로서 주로 農神을 받드는 信仰이며 여우를 神의 使者라 여기는 점이 특이하다.

事·農耕儀禮·生業·口承文藝 등- 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까지의 보고는 물론 연구 또한 너무 많은 관계로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論文을 중심으로 몇 가지의 문제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

먼저, 山神信仰研究에 있어서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호리다(堀田吉雄)(『山の神信仰研究』伊勢民俗學會, 1966)를 그 대표적인 인물로 들 수가 있다. 이 저서에서는 「山神의性格」 「山神의祭祀에 관하여」 「山神의周邊」 등을 전 3편 20장으로 나누어 제1편에서는 山神에게 현저히 인식되는 性的要素·殖産神(생산량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믿는神) 性格·山神이 좋아한다고 여기는 오코제(オコゼ)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제2편에는 山神에게 올리는 神饌·祭物 이외에 禁忌·口承文藝에 관해 論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3편에서는 山神이 변질된 것이라 여기는 마귀할멈이나 요괴, 道組神⁶⁾, 불교와의 관련 등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특히, 전국적인 시야에 입각하여 生業의 차이 등에도 주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山神信仰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앞에서 열거한 것들 중 오코제(オコゼ)에 관해서는 重出立証法⁷⁾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에서 문제점을 더 한층 진척시킨 치바(千葉德爾)(「山の神信仰の-考察-ヲコゼと重出立証法-」 『日本民俗學會報』 65, 1969)의 論文이 있다. 치바는 호리다의 자료 분석 방법을 비판하면서 그의 자료를 새로이 정리한다는 형태로 山神과 海神의 딸과의 혼인, 그 중개자로서의 오코제, 양자의 혼인에 의해 출생하게 되는 다수의 자녀라는 모티브를 지니는 信仰이 바로 山神의 완벽한 형태의 傳承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농민, 사냥꾼의 山神에 대한 인식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농민이 신앙하는 완전한 형태의 전승계통의 산신은 미코가미(御子神)信仰·母子神信仰을 가장 잘 나타낸

-
- 6) 道祖神 : 마을의 경계나 마루턱에 모셔지는 神으로 禍·惡靈을 막아주며, 수호신들을 合體한 石像으로된 行人을 지켜주는 神이기도 하다. 지방에 따라 出産이나 婚姻을 도와주는 神으로 모셔지기도 한다. 명칭 또한 다양하여 다무케노가미(たむけの神)·사이노가미(さいの神)·치다타가미(ちまた神)·구나도가미(くなど神) 등이라 불린다.
- 7) 重出立証法 : 어떤 民俗에 대하여 전국적규모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각 유형간의 相違点으로부터 그 民俗의 變遷過程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比較研究法.

것이라 하고, 「神을 구한 이야기」로 대표되는 사냥꾼에게 전해지는 山神은 海神의 딸이 혼인에 의해 山神이 되는 모티브에 두 사람의 사냥꾼이라는 요소가 附加된 것이라고 한다. 치바에게는 이 논문 이외에도 山神이 가지는 性的要素에 주목하여 男根을 바치는 행위에 대해 논한 「山神と男根」 아내를 山神이라 부르는 점에 대해 論한 「女房と山と神」(『季刊人類學』6-4, 1975)이 있으며, 치바가 중요한 연구과제로 삼고있는 수렵전승연구의 일환으로서의 山神信仰研究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농경민이 받들어 모시는 山神信仰은 봄이 되면 마을로 내려와 農神(田の神)이 되고 가을에 수확을 마치면 산으로 돌아가 山神이 된다고 하는 山神·農神의 交替를 주장하는 신앙이 기본적인 것이라 간주하며, 이러한 往來信仰이나 山神의 殖産神的性格, 死後의 영혼의 行방등으로부터 山神의 祖靈의 性格이 지적되어 왔다. 앞에서 언급한 호리다도 점차 祖靈化의 경향을 강화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山神과 農神의 교체를 주장하는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그것은 傳承이 소멸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등, 종래의 견해를 계승하고 있으며, 이노구치(井之口章次)(『祖靈信仰と山の神』『人類科學』12, 1960)도 농민이나 사냥꾼들이 신봉하는 山神信仰에서 알 수 있는 동질성과 이질성을 祖靈信仰과 관련지어 論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山神·農神의 교체에 대해 의문을 제시한 네리·나우만(「田の神と山の神は果して交替するか」『日本民俗學』76, 1971)은 「본래 유일한 공통의 근원으로부터 파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信仰속에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오랜 세월 속에서 다양한 결합체를 형성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나우만의 견해와 다른 漁民이 신봉하고 있는 山神이 이 信仰을 해명할 수 있는 열쇠라 하며 일본문화의 기원까지 다룬 오쿠노(奥野廣隆)(「山の神信仰の問題点-熊本縣の山の神信仰を中心として-」『日本民俗學』105, 1976)의 論文도 있다. 이 밖에도 미나미규슈(南九州)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한정하긴 하지만, 오노(小野重郎)「南九州の正月仕事始め儀禮-山の神信仰の展開-」『日本民俗學會報』34, 1964, 「南九州の山の神をめぐる年中行事」『日本民俗學會報』51, 1967, 「河童の系譜と山の神」『日本民俗學』93, 1974)의 山神 → 農神(田の神) → 家神 이라고 하

는 변천을 고찰한 연구논문들이 있으며, 특히 갯과(河童)의 원형을 山神이라고 주장한 논문이 눈에 띈다.

農神(田の神) 信仰에 관해서는 家屋内部에 모셔지는 일이 많은 神들이 바로 이 信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 農神 信仰도 야나기다(「狐塚の話」 『民間傳承』 12-11·12, 1948, 「田の神の祭り方」 『民間傳承』 13-3~5, 1949)에 의해서 하나의 견해가 분명히 밝혀지고 있다. 그에 따르면 家内に 들어오게된 農神에 대한 祭祀는 본래 집밖에서 행하던 것으로서 논의 한 구획 그 중에서도 오야다(親田:못자리논)라든가 기쓰네즈카(狐塚)라 불리는 장소가 그것에 해당하며 山神·農神의 교체가 행해짐과 동시에 여우의 性格·食性등으로 미루어 볼 때 農神의 使者가 바로 여우라는 信仰도 성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야나기다의 견해는 그 대강의 줄거리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해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들 중에서 農神의 往來에 대해 山에서 논으로라는 것 이외에 논에서 家로 라고 하는 信仰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지적을 하게 된 계기 중의 하나로서 노토(能登)지방에 전해지는 아에노코토(アエノゴト) 행사에 관한 연구논문이 있다. 이 행사는 家 ↔ 짚 이라고 하는 往來傳承 이외에 일관된 농경의례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라 할 수 있는데, 호리(堀一郎) (「奥能登の農耕儀禮について」 にひなめ研究會編 『新嘗の研究』 1 創元社, 1953) 이외에도 많은 보고서와 논문이 있다. 또한 家 ↔ 짚의 往來傳承은 이노코(亥の子)⁸⁾ 傳承을 근거로 니시타니(西谷勝也) (「田の神の去來-兵庫の亥の神祭-」 『日本民俗信仰會報』 1, 1958)도 지적하고 있으며, 쓰보이(坪井洋文) (「家の神去來信仰」 『日本民俗學』 4-4, 1957)는 農神·山神·家神의 3者 往來傳承을 논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神, 집에서 논으로 나가는 神, 山에서 집으로 내려오는 神, 집에서 山으로 가는 神, 집과 논 사이를 왕래하는 神, 往來脫落의 형태, 집을 지키는 家神으로 7가지 타입

8) 이노코 : 음력 10월의 첫째날을 의미하는 말로서 西日本 각지방의 농촌지역에서 널리 행해지는 일종의 추수감사 행사이다. 멧돼지의 多産을 부러워하고 또한 만병을 퇴치하는 呪術의인 의미로 이노코모치(亥の子餅)를 먹으며, 아이들은 農家の 앞마당을 돌이나 짚 뭉치로 다지며 돌아다니기도 한다. 이것은 본래 高中의 年中行事로 행해지던 것이었다.

으로 나누어서 論하고 있다. 이러한 農神(田の神)에 관해서는 이노구치(井戸口章次) (「農耕年中行事」 『日本民俗學大系』 7 平凡社, 1959)가 1955년대 초기까지의 연구성과를 아주 잘 정리하고 있다.

農神은 地神·이노코(亥の子)등 지역에 따라서 그 호칭방법이 다른데, 이들 중 아와지시마(淡路島)를 중심으로 한 山神·地神·긴키(近畿)지방의 이노코가미(亥の子神) 등에 관해서는 니시다니(「季節の神々」 慶友社, 1970)의 저서가 있으며, 규슈(九州)의 農神에 관해서는 오노(小野重郎 『農耕儀禮の研究-南九州における發生と展開-』 弘文堂, 1970) 그리고 노다(野田千尋) (「田の神像-南九州大隅地方-」 木耳社, 1971) 등의 論文이 각각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이노구치·쓰보이의 論文 등이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농경의례의 분석을 통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목되는 것은 火田·田作地帶에서 행해지는 농경의례이며 農神이다.

農神을 가리켜 여우라 간주하는 信仰은, 여우를 매개로 이나리(稻荷)信仰으로 전개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후시미이나리(伏見稻荷)를 중심으로 하는 이나리 信仰은 農神, 그 神의 使者로서의 여우라는 信仰을 기반으로 하여 유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農神, 그 神의 使者로서의 여우라는 信仰의 성립을 다름아닌 여우가 쥐를 좋아한다고 하는 食性에 착안하여 論理를 전개한 하코야마(箱山貴太郎) (「稻荷信仰について-主として狐との關係について-」 『日本民俗學會報』 32, 1964)의 論文이 있으며, 후시미이나리 信仰의 圈外에 관심을 가지고 같은 이나리 信仰이라고 해도 여우에 대한 信仰이 그 中心에 위치하고 있음을 분명히한 나오에(「稻荷信仰」 和歌森太郎編 『津輕の民俗』 吉川弘文館, 1970)의 論文 또한 중요하다 하겠다.

이상과는 달리 후시미이나리의 전개를 論한 것으로서는 비고(肥後和男) (「稻荷信仰のはじめ」 『朱』 1, 1967) 니시다(西田長男) (「稻荷社の起源 第1稿」 『神道史學』 5, 1954) 그리고 미야지(宮地治邦) (「稻荷信仰の一基盤-丑祭を中心として-」 『日本文化研究所紀要』 9, 1961) 등의 論文이 주목되지만, 이나리신사(稻荷神社)가 발행하는 잡지 『朱』에는 많은 주목할 만한 論文들이 게재되어있다. 그렇지만, 이나리신앙의 유포는 단순히 農神 ↔ 여우 信仰을

기반으로 할 뿐만 아니라 流行神의 性格에 의한 점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나리 信仰은 그 해결 방법을 금후로 미루는 경향이 많은데, 이 信仰이 체계적으로 논의 된 이후에는 民間信仰이 포함하고 있는 상당한 부분들이 더욱더 분명해질 것이라 기대된다.

그런데, 인간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면서도 필수 불가결한 물, 그 精靈 혹은 神格化한 존재인 水神도 農神·山神과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한 信仰體系를 나타내고 있다. 이 水神信仰에 관한 야나기다(「人を神に祀る風習」『民族』2-1, 1926 (『定本柳田國男集』8 筑摩書房, 1962) 「海神少童」『旅と傳説』1930 (『定本柳田國男集』25 筑摩書房, 1962) 의 견해를 볼 것 같으면 강신(川の神)·우물신(井戸の神)·연못신(池の神)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우는 神도 본래는 하나의 神, 즉 水神에 통합되는 것으로서 수신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믿음을 근거로 인간 세계에 파견되는 使者는 대개 어린 소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信仰이 몰락한 것이 바로 갖과(河童)라고 한다. 또한 이시다(石田英一郎) (『河童駒引考-比較民俗學的研究-』筑摩書房, 1947 (新版 東京大學出版會 1966, 『石田英一郎全集』5, 筑摩書房 1970) 는 河童傳承중에서 물가에서 놀던 말을 河童이 물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다 실패하는 傳承을 근거로 이것을 비교민속학적인 입장에서 동서고금의 자료를 분석하여 地母神信仰(多産과 豊饒를 초래하게 하는 神)과 깊은 연관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水神信仰은 先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언급해온 農神·山神·家神의 信仰과도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여름축제의 대표적인 것들 중의 하나인 祇園·津島信仰등이 水神과 연관되어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지금까지 개개인의 지적에만 머문 나머지 좀더 구체적인 체계화는 앞으로의 끊임없는 연구성과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水神信仰의 문제점을 정리한 이노구치(「水神信仰の研究について」『西郊民俗』9, 1959) 水神과 무당과의 관계를 지적한 오후지(大藤時彦) (「水神信仰の一側面」『成城文藝』24, 1962) 도네가와(利根川) 유역의 水神信仰을 7가지로 분류한 나오에(「利根川流域の水神信仰」『利根川』弘文堂, 1970)의 논문이 있다.

그러나 水神信仰研究에 있어서는 주로 갓과(河童)전승의 분석에 치중되어 온 감이 없지 않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소개한 오노의 논문 이외에 몇 편인가의 주목할 만한 논문이 있다. 그 중에서 치바(「田仕事と河童」『信濃』10-1, 1958)는 이를 河童傳承의 계통·전승보존의 환경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문제점으로 압축하여 일반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河童이 물속에서 갑자기 나타나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전승이나, 인간에게 붙잡혀 그 통제에 굴복하는 전승은 극히 일부분적인 것이며 본래의 信仰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는 내용은 稻作과 관련된 것이었지 않겠는가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시가와(石川純一郎) (『河童の世界』時事通信社, 1974)는 여러 가지 河童에 관한 傳承을 河童의 기원·말을 물속으로 끌어당기는 河童, 간을 빼먹는 河童등 10章으로 나누어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다.

VI. 맺음말

日本の 神觀念을 이해할 경우뿐만 아니라 民間信仰·日本の 宗教 또는 家나 親族을 論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도 야나기다가 주장하는 祖靈信仰을 무시하고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家神信仰에 관해서도 그 핵심에는 祖靈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야나기다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祖靈信仰이 家の 祖上으로서의 祖靈이었다는 것을 필두로 많은 先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본고에서는 기층문화로서의 家神 및 宅地神 그리고 山神·農神·水神에 관해 주로 研究史的인 면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여 왔는데, 이는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여러 研究결과에 의해 그 중심에 祖靈信仰이 위치하면서도 現象面에 있어서는 다양한 성격을 띠며 각종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이 더욱더 분명해 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과 동시에 그것을 유지하는 집단에 대한 좀더 상세한 분석, 다시 말해서 최근 들어 그와 같은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社會組織에 대한 면밀한 분석방법을 더욱 발전시키고, 지역에 의

한 차이점은 물론 여러 신앙과의 관련여부 등 좀더 다각적인 관점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池上廣正 「靈と神の種類とあらわれ方」 「人と神」 「自然と神」
『日本民俗學大系』8 平凡社, 1959
- 伊藤幹治 「祖先崇拜と『家』」 『講座家族』弘文堂, 1974
- 岩崎敏夫 「村の神々」 岩崎美術社, 1968
- 岡正雄 「日本文化の基礎構造」 『日本民俗學大系』8 平凡社, 1962
- 櫻井徳太郎 「民間信仰」 埼書房, 1966
- 坪井洋文 「家の神の重層性」 『日本民俗學』3-3, 1956
- 坪井洋文 「家の象徴」 『講座家族』2 弘文堂, 1974
- 長谷川善計ら 「家・屋敷地と靈・呪術」 早稻田大學出版部, 1996
- 藤井正雄 「基層としての民間信仰」 櫻井徳太郎編
『日本民俗學講座3 -信仰傳承-』朝倉書店, 1976
- 福田アジオ・宮田登編 「日本民俗學概論」 吉川弘文館, 1983
- 堀一郎 「民間信仰」 岩波書店, 1951
- 民俗學研究所編 「民俗學辭典」 東京堂出版, 1951
- 大島建彦ら 「日本を知る事典」 社會思想社, 1971
- 梅棹忠夫ら 「THE 日本」 講談社, 1986

Abstract

For the Relational Analysis of Basic Culture Between Korea and Japan Historical Study of the Worship of Family God

Park Dong-Suk

When we want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a god and to discuss the folk belief, Japanese religion, family and relatives, we must not disregard the belief of worshipping of the soul of ancestor.

Especially, Yanagida consistently insisted that in the center of family god worshipping, there exists a soul of ancestor which has been indicated by a number of scholars.

In this study, I'm focusing upon family god as an basicculture which illuminates not only in its center the worshipping of a soul of ancestor but also its diverse features and several forms. Along with these studies, I think it is necessary for us to review, from a diverse point of view, the social system in detail, and its differences according to its location, and its relations with several religions.